자동차

Car

■본사 최경호 기자 기아新車 '뉴 카렌스' 타보니…

'LPI엔진의 힘' 언덕길 씽씽 소음 크게 줄고 세단 승차감

차체 커지고 세련미 더해
역동적 디자인 채택 눈길
고유가 시대 연비도 장점

국내 LPG차량의 전성기를 이끌던 '카렌스'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아자동차가 최근 출시한 '뉴 카렌스'는 기존 세단과 SUV의 장점을 두루 갖춘 CUV(Crossover Utility Vehicle) 차량을 표방하고 있다. 승차감은 세단 승용차를 타는 것 같으면서도 가속력을 즐길 때는 SUV를 모는 듯한 기분이 들 만큼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우선 '뉴 카렌스'는 기존 카렌스보다 차체가 커진 데다 강인함과 세련미가 느껴지는 역동적 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측면의 경우 최근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CUV차량의 외관을 연상케할 만큼 완벽한 균형미를 갖추고 있다.

차량 내부는 기존 카렌스에서 느낄 수 없었던 고급세단 감각의 공간으로 꾸며졌다. 운전석의 경우 핸들 좌우측에 오디오 리모컨과 핸즈프리 등이 장착돼 조작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열선시트와 뒷자리 에어컨 통풍구 등 대형차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뉴 카렌스'의 진가는 주행시 더욱 두드러진다. 세단의 승차감과 SUV의 강인함을 동시에 발산함으로써 LPG차량임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윙'하는 엔진음과 함께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힘차게 튀어나간다. 또 시속 150~160㎞까지 속도계 바늘이 여유있게 올라간다.

힘이 떨어진다는 것도 옛말이다. '뉴 카렌스'는 최고출력 136마력에 최대 토크가 18.9㎏·m/4,250rpm으로 언덕길에서도 웬만한 승용차는 거뜬히 추월한다. 디젤차의 전매특허인 힘과 가속력을 LPG차에서 구현해 낸 것이다. 국내차에선 좀처럼 맛보기 힘든 감동을 느끼는 이유다.

이같은 변신은 고성능 LPI(Liquefied Petroleum Injection) 엔진이라는 새로운 '심장'의 위력 때문이다. 연료를 기체화시켜 실린더에 주입하던 과거 LPG 엔진에 비해 LPI 엔진은 기체화시키지 않은 고압의 연료를 실린더에 직접 분사한다. 그만큼 출력과 연비가 좋아진 것이다.

실제 시승을 위해 광주 외곽인 담양 등지를 다녀왔는데도 연료계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과거 10여㎞의 출·퇴근길 주행에도 연료 게이지가 현저하게 줄어들던 기존 LPG차량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출발장소로 되돌아오는 길에 ℓ당 740원 하는 충전소에서 비어있는 탱크를 가득 채우자 4만5천원 어치가 들어갔다. 연료탱크 용량이 62ℓ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비가 개선되고 연료탱크가 커졌다는 점 만으로도 잦은 충전의 번거로움이 크게 해소된 것이다. 또 기존 LPG차량의 최대 단점 가운데 하나인 겨울철 시동이 안 걸리는 현상도 사라졌다는 게 기아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뉴 카렌스'는 디자인은 물론 엔진과 편의시설 등을 모두 최신형으로 탑제하면서 성능과 경제성 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뤄냈다. 기아차가 '이름만 빼고 다 바꿨다'는 광고카피를 내세우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밖에도 운전석과 조수석 좌우에 위치한 수납공간을 찾아보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센터페시아는 물론 차량 곳곳에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수납공간이 마련돼 있다.

급회전시 주행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차체자세제어장치(VDC)와 탑승 인원의 중량 변화에 따라 제동력을 배분하는 EBD ABS, 위치조절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이동식 루프백 등 안전·편의사양도 나무랄 데 없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뉴 카렌스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CUV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이 차량으로 1년간 2만㎞를 주행할 경우 같은 배기량인 2천cc급 가솔린차에 비해 연간 90만원 가량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유가시대에 걸맞는 최적의 차량이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LPG차량 부활하나

'뉴 카렌스' 출시후 관심높아
2주만에 계약 5,200대 돌파

기아자동차의 '뉴 카렌스' 출시를 계기로 한동안 시들었던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의 인기몰이가 재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뉴 카렌스는 출시 2주만인 25일 현재 5천200여대의 계약을 돌파하는 등 기대 이상의 호조를 보이면서 LPG차량의 부활을 이끌어낼 기대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LPG차량은 지난 2000년만 해도 기아차 카니발, 카스타, 현대차 갤로퍼, 싼타페, 싼타모 등 총 8종이 각축을 벌이며 25만9천여대가 판매돼 휘발유차를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

하지만 출력이 낮고 충전소가 주유소에 비해 부족한 점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2004년에는 판매량이 1만4천여대로 급감했다.

신차도 2002년 카렌스Ⅱ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출시되지 않았고 지금은 대우차 레조와 카렌스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급감하던 LPG차의 부활 조짐이 지난해부터 감지됐다. 휘발유가 ℓ당 1천500원대를 넘어가면서 가격이 750원대로 절반에 불과한 LPG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또 휘발유의 대안으로 떠 오르던 디젤차의 연료인 경유값이 정부방침에 따라 1천200원대까지 올라 LPG가 더욱 각광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판매량이 전년과 비교해 레조가 28.6%, 카렌스Ⅱ가 25.9% 증가했다.

기아차는 특히 새로 출시된 뉴 카렌스로 이같은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엔진을 비롯한 각종 부품을 최신형으로 교체하면서 기존 LPG차량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출력과 연비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킥스프라임'·'솔룩스' 등 고급 휘발유 판매 경쟁

국내 정유업체들이 고급 휘발유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GS칼텍스, SK㈜, 현대오일뱅크 등은 고급 휘발유 브랜드를 내놓고 판매망을 넓히고 있다. 고급 휘발유는 일반 휘발유보다 ℓ당 150~200원 정도 비싸지만 옥탄가가 높아 엔진을 보호하고 차량 성능을 높여 주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모으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6일부터 고급 휘발유 '킥스 프라임'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GS칼텍스는 킥스 프라임을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를 12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오는 6월 말까지 고급 휘발유 체험권, 고급 휘발유 고객 대상 판촉물을 제공하고 주유소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도록 고급 휘발유 전용 사인을 설치해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SK㈜는 '솔룩스'를 지난해 10월부터 내놓았고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월부터 30여 주유소에서 고급 브랜드 '카젠'을 판매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